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8호 [루게 제2758호]

주제 112
(2023)년 7월
8일
토요일
음력 5월 21일

철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산을 보아도 거리와 마을, 어촌을 보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가슴뭉클 찾아들게 하는 7월이다.

별써 스물아홉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모든것을 망각속에 묻어버린다지만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영생축원의 정갈한 마음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물결쳐흐르고있다.

은 나라 인민 누구나가 다 그리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가까이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번화가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에서 사는 주민들의 심정은 더우기 남다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 시각 화려한 화성거리에서 행복을 누리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에 복된 삶의 보금

자리를 펴게 되니 위대한 수령님들생각이 더 강렬해져 아침저녁 수령님들께 인사를 올리곤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리라면 지금 신경의 새 거리에서 사는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며 더욱 환하게 웃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이 행복은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 위민헌신이 안아온것이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이 나라의 새벽문을 남면저 여시고 험한 길을 남면저 헤쳐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는 동물들이 백미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미를 얼마든지 맞겠소라고 하시며 진눈까비 내리는 캄캄한 밤에 몸소 촛불을 드시고 걸으신 삼석의 비탈길과 형식주의를 하려면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는가고 하시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걸으신 신도의 감람길, 그리고 인민들이 있

는 곳에는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승용차를 밀며 가신 우암의 진렬길...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걷고 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식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농촌집의 가마부정도 열어보시고 새집들이한 가정을 찾으시어는 구들이 따뜻한가 몸소 방바닥도 짚어보시였으며 공장노동자들의 합숙과 식당에도 들리시어는 이불 두터이도 가능해보시고 국맛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다.

잊지 못할 주제83(1994)년 7월 7일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혁명일화는 지금도 천만의 가슴을 적셔주고있다.

이날 밤늦도록 식사마저 제대로 들지 못하시며 무리하게 사립하시신 어버이수령님께 식사를 하고 좀 쉬시기를 바라며 애원하듯 말씀올리는 한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고맙소,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소,

... 내가 일손을 놓으면 최고사령관에게 그만쯤 부담을 더 주게 될것ियो, 김정일동지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혼자 걸머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있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소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무더운 한여름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사업은 계속되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며...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쟁그리 바치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세 세기를 맞으며 지나온 세기를 돌이켜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시였으면 자신의 건강을 축원하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럽없이 살게만 되면 100살까지 살수 있다고 하시였겠습

니까, 우리는 수령님께서서 그처럼 바라시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라의 높은 령, 험한 길을 다 넘고 걸으시고 이 땅의 찬눈비는 다 맞으면서서 인민이 누려갈 만복의 씨앗들을 뿌리셨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같은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맥맥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르신 마식령스키장의 삭도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승강기를 타보아도, 그이께서 몸소 지도 해주신 화성거리형성안이 1 630여건이나 된다는 어느 한 일군의 격정에 젖은 이야기들 들어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으신 그 눈에 익은 운동화의 뒤축이 다 닳았다리면서 눈물짓던 평범한 건설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목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건설현장을 찾기도 하시며 온 세상이 부러움에 일떠세워주시는 인민의 호화주택구-경루등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세계를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이 땅의 행복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제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수십년간 한직종에서 묵묵히 일해온것뿐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저를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고 경루동의 호화주택에 제일먼저 불러주었습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때 받아안은 사랑이라면 이따지도 눈물겹지 않았습니

다. 나라사정이 제일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같이 평범한 로동자가장정에 궁핍같은 새집이 안겨질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의 절대적지침으로 되고 인민을 위한 사변과 기적들, 거창한 변화들이 끝없이 태어나는 이 땅, 이 시대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더욱 만발하는 인민의 행복, 고난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인민의 리상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있다.

창전거리의 45층살림집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 리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거쳐 송화거리의 80층살림집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추추리며 힘없이 나래쳐오른 행복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심혈과 로고가 주추로 되어 받아들여올린 인민의 행복의 높이이다.

수도 평양뿐이 아니다. 인민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평양의 거리를 떠나 멀리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곳일수록 더 뜨겁게 울리고있다. 삼지연과 중평, 료포와 김화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말도 들어보고 사랑의 농기게들이 줄지어 달리는 황남의 드넓은 포전들을 밟으며 땅처럼 소박한 연백별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다. 사회주의농촌의 새집들이기쁨과 함께 눈물젖은 인민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메아리가 울리고있다.

바로 이 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른다는 철리가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부흥강국의 휘황찬 미래를 당겨오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손지성

